

◇ 발표요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과학사연구

임 정 혁

일본 조선대학교

* 이는 본 학회의 가을 발표회(1998년 10월 31일)에서 발표된 글을 원문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 편집인 *

과학사연구는 역사연구전반과 함께 현재의 자연과학 각 분야마다의 연구의 심화가 발전의 조건으로 된다. 정전이후에 각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으로 약기)에서는 과학사연구의 역사는 오래지 않다. 이 글에서는 공화국에서 출판된 과학사관계의 문헌들에 의거하여 세단계로 나누어 연구내용을 개괄하고 그 경향과 특징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공화국의 과학사연구를 주도한 연구자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필자의 연구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고 한다.

1. 연구개관

1) 제1단계 (1972년이전)

공화국에서의 과학사연구는 우선 과학사를 우리 나라 문화사의 중요한 구성부

분으로 역사연구의 일부로서 진행되었다. 초기의 역사연구의 중요과제는 일본의 식민지사관에 의해 그릇된 역사상을 극복하고 조선사람 자신에 의한 주체적발전의 견지에서 바로 잡는것이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나라 사회의 내재적인 발전, 우리 나라 문화의 창조적인 발전, 외세에 대한 투쟁의 역사를 옳게 인식하는 것이다. 과학사연구는 그와 직접 관련되는것으로서 처음부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러한 목적밑에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하여 씌여진 최초의 책이 1956, 57년에 출판된 리용태편 《우리 선조의 자랑·과학과 기술의 이야기(1), (2)》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분야별로 해설한 책인데 편자는 앞말에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적업적은 크게는 세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는 금속활자나 측우기, 거북선처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것이며 둘째는 시간적으로는 외국에서 이미 발명·발전되었으나 그것을 모르고 우리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것, 혹은 외국에는 그것이 있다고 알려져있어도 그 제조법이 비밀로 되어있어 역시 우리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것들이다. 그 예로서 화약이나 도자기 있다. 셋째는 외국의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 기술을 배워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선·발전시킨것들이다. 그 예로서는 종이, 천문관측기계, 건축기술 등이 있다.

또한 편자는 우리 나라 과학사의 특징으로서 그것들이 민족적인 특색을 가지고 발전하였다는것, 천문관측이나 전국적인 기상관측 또한 의학서나 농업서의 저술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학자, 기술자의 집단적노력이 발휘되었다는것, 그리고 훌륭한 과학연구 혹은 기술적개발을 해낸 사람들은 많은 경우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공화국에서의 초기의 과학사에 대한 기본적인 리해라고 말할수 있는바 그 지적은 현재도 의미를 가진다.

그 책은 문자 (김병제), 조선의 종이와 책 (홍기문), 주물과 활자 (김창근, 조운호), 각종 기계 (김승원), 지리지와 지도 (박경수), 무기와 화약 (김석형), 배와 해상활동 (김사역), 천문관측과 리론 (리용태), 기상관측 (리석종), 수학 (엄중학), 건축 (방덕근), 의학 (량진홍), 방직과 의복 (김연식), 미술과 공예 (리여성, 김우)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입문서적인 성격의 책이지만 각 분야의 일인자라고 할수 있는 연구자들이 해설한것으로서 간결하게 쓰여져있지만 그 수준은 높다.

우리 나라의 과학사연구는 1944년에

출판된 홍이섭 《조선과학사》(일문판)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의 종합적인 내용을 가진 책은 약 20년후에 출판된 전상운 《한국과학기술사》인데 《우리 선조의 자랑·과학과 기술의 이야기》는 그 중간에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앞에서 과학사는 문화사의 일부로서 연구되었다고 했는데 그 성과를 집대성한것이 1963년에 출판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편 《조선문화사》이다. 이 책은 김석형, 류렬, 정진석, 리용태를 비롯한 34명의 전문가가 각 시대마다의 과학, 기술, 사상, 어학, 문학, 미술, 민속 등을 항목별로 해설한것이다. 이 시기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전설을 다그치는 속에서 민족문화의 전면적인 계승과 새로운 발전이 제창되어있었다. 《조선문화사》는 그러한 사회환경속에서 출판된것으로서 그 기본시점은 우리 나라의 문화발전을 조선사람자신의 창조적능력의 발현과정으로 본다는것이다. 이것은 응당 과학기술사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일본에서도 번역출판되었는데 일본판은 사진도 더 풍부해지고 매우 훌륭하게 만들어졌다.

제1단계의 과학사연구의 성과로서 고전서적에 대한 연구를 올릴수 있다. 과학사연구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고전서적의 연구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1960년을 전후한 시기에 공화국에서는 《삼국사기》, 《고려사》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서적의 현대어번역이 진행되어 1963년에는 그 성과에 의거하여 《조선기술발전사자료집》

전4권이 출판되었다. 그 제1집은 선박관계, 제2집은 생산기계, 관측기계, 무기 기타, 제3집은 활자, 인쇄, 제4집은 광업기술에 관한것이다. 제목이 자료집이라고 되어있는 이유는 그 개괄과 기술공학적 분석과 함께 그 발전과정을 밝히는 자료를 옛날의 문헌에서 수집하고 체계화하여 수록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 1965년에는 천문학서적 22, 수학서적 8, 의학서적 37, 농업서적 11, 화학서적 2, 어학서적 2, 건축서적 1, 그리고 지리서적 104의 합계 176의 고전서적을 해설한 고전연구소편 《조선고전해제(1)》가 출판되어있다. 자연과학관계의 고전서적을 이처럼 체계적으로 망라하고 해설한 책은 현재까지도 없으며 과학사연구의 참고문헌, 자료로서의 가치는 제법 높다.

또한 제1기의 특징의 하나는 실학(實學)에 대한 연구가 많은것이다. <실학>이란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화국에서는 《17세기중엽부터 하나의 사상조류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19세기중엽까지 지속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사회사상조류》라고 정의하고있다. 실학이란 말에 대해서는 <실용지학(實用之學)>과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요약한것으로 해석하여 실학자들의 학문의 내용에서 <실용지학>을 추구하고 그 방법에서 <실사구시>라는 관점과 태도를 나타낸것이라고 하고있다. 그 <실용지학>의 중요한 내용이 과학기술이라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실학자들은 그 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하여 많은 업

적을 남기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문화사의 훌륭한 업적으로서 실학을 높이 평가하고 일찍부터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속에서도 1960년에 출판된 정진석, 정성철, 김창원 《조선철학사》는 남북에서의 처음되는 통사이며 철학과의 관련의 중요성으로부터 자연과학에 관해서도 기술되어 과학사상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문헌이다. 실학에 관해서도 상세히 서술되어있으며 특히 실학파의 대표적인물인 최한기는 이책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책은 일본에서도 번역출판되었으며 지전설(地轉說)을 포함한 독창적인 우주론을 제창한 홍대용은 이 책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일본에서도 그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1963년에 출판된 철학연구소편 《탄생200주년기념논문집·정다산》은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서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수 있다. 이 시기 《력사연구》, 《철학연구》등의 학술잡지에는 실학자들의 자연관, 과학사상에 관한 논문이 수많이 게재되었다.

제1단계의 연구를 요약한다면 력사연구의 일부로서의 민족문화의 훌륭한 업적에 대한 발굴, 확인작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2) 제2단계 (1972~1992년)

《조선문화사》는 60년대의 공화국에서의 력사연구의 가장 훌륭한 성과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후에 몇가지 문제점

이 지적되었다. 그것은 과거의 문화유산을 시대적제한성을 고려함이 없이 무원칙적으로 평가하였다는것이다. 그 복고주의적경향의 극복을 강조하니 이번에는 모든 문화유산을 부정한다는 편향이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역사연구소에서 신중히 검토되어 1972년에 《민족문화유산연구》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민족문화유산을 옮겨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우리 나라의 민족문화유산의 개관과 평가〉의 두편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우선 제1편에서 민족문화유산평가에 대한 원칙이 밝혀졌다. 그것은 민족문화유산을 그것이 생겨난 시대의 역사적인조건과 배경 속에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밝히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은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그 가치가 없는 것은 역사적자료로서 보존한다는것이다.

제2편에서는 실학, 옛날의 명장과 애국주의, 철학, 문학, 음악, 무용, 미술, 과학기술, 언어, 고서적, 유적유물, 풍속 등 문화전반을 개관하고 평가하고있다.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특히 중세과학기술에서 볼수 있는 음양오행설과 같은 비과학적인 요소가 분석비판되어있다. 또한 동의학, 농학, 식료가공, 방직과 같은 과거의 과학기술의 계승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있다. 과학사연구를 1972년이전과 구분한것은 이 책이 출판되어 민족문화전반에 대한 평가의 원칙이 확립되고 과학사에 대해서도 응당 그 원칙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나 그후 몇해동안은 그 연구가 신중히 되었는지 아니면 연구자들이 다른 큰 사업에 집중한탓인지 과학사관계의 문헌은 홍순원 《조선보건사》외는 찾기 어렵다. 그 큰 사업의 하나가 리조 5백년 동안의 정치경제적, 문화적사실을 기록한 《리조실록》의 현대어번역이다. 《리조실록》은 권수가 약 2000, 책수는 약 900에 달하는 방대한것인데 민족고전연구소에 의한 번역판은 1975년부터 간행되어 1991년에 전 400권으로 완성되었다. 《리조실록》의 내용은 그날의 날씨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인사, 형벌 등 국내외의 모든 사정을 상세히 기록한것으로서 과학사연구를 포함한 역사연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1979년부터는 다른 하나의 큰 사업인 역사연구소편 《조선전사》의 간행이 시작되었다. 《조선전사》는 말그대로 우리 나라의 전체력사를 서술하려는 책으로서 과학사에 관해서도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후기신라, 발해의 순서로 고려시대는 10~12세기, 13~14세기의 두장으로 리조시대는 15~20세기초기까지를 각 1세기씩 서술하고있다. 그 내용은 이제까지의 성과에 기초하면서도 보다 연구를 깊게한것으로서 현대적관점에서 분석검토하고있다.

그 기본내용은 고대는 청동·철의 가공기술, 천문관측, 의학이며 삼국시대는 그것에다가 기상학과 건축, 농업기술이 불어나고 후기신라시대에는 목판인쇄, 지리학이 불어난다. 고려시대가 되면서 거기에 금속활자, 인쇄, 고려자기, 무기제

조, 조선, 역사서적편찬에 대한 기술이 보태어져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해진다. 리조시대에는 그위에다 화약, 수학, 생물학, 실학 등 분야의 세분화와 함께 그 과학적수준도 높아진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조선전사》는 과학사의 통사로 쓰여진것이 아니기에 과학사자체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과학기술사적사실의 확인에 기초하여 그것을 발전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과학기술자체의 특성과 함께 각 시대의 사회제도 및 국가체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당시의 사상적내용과 어떤 련관이 있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조선전사》의 기본시점은 인류의 력사발전과정은 근로인민의 <자주성>의 실현과정이며 그들의 자주적, 창조적활동에 의해서 사회가 합법칙적으로 발전한다는것인데 그렇다며는 그것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어떤 련관이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데 그 추구가 약하다. 이는 과학사연구를 력사연구의 일부분으로 보는데에서 오는 제한성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사연구를 독자적인 분야로 확립하여야 한다.

1990년에 출판된 리용태 《우리 나라중세과학기술사》는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통사이다. 제목에 있는 중세라는 말은 봉건시대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기원전 3세기의 삼국시대로부터 19세기전반까지를 포함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나라 과학사의 거의 전부를 망라하

고있다. 이 책에서는 우선 각 시대의 과학기술적발전의 사회력사적조건을 고찰한 다음 《삼국사기》, 《고려사》, 《리조실록》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고전서적과 중국, 일본의 옛 문헌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적내용을 정리·분석하고있다. 또한 과거의 일본과의 과학기술교류에도 관심을 돌리고있다. 내용은 웅당 《조선전사》보다 자세하고 현시점에서의 공화국의 과학사연구의 도달점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전사》를 간행한 력사연구소에서는 《조선부문사》라는 시리즈를 간행하였는데 과학사와 관련된 책들은 다음과 같다. 1988년 박만협 《조선교통운수사·철도편》, 1989년 리화선 《조선전축사(1), (2)》, 홍희유 《조선상업사》, 1990년 손영중, 조희승 《조선수공업사(1)》, 황공률 《조선근대문화운동사》, 1991년 김준기, 리충광, 오무일 《조선운수사·자동차편》, 리태용 《조선광업사(1)》, 장국종 《조선광업사(2)》, 홍희유 《조선수공업사(2)》.

이러한 책들이 출판됨으로써 과학사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제2단계의 연구를 요약한다면 과학사평가의 원칙이 확립되고 그 실증적연구가 깊여지고 과학사를 독립적인 연구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말할수 있다.

3) 제3단계 (1994~현재)

부문사 간행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큰 성과는 《조선기술발전사》 전5권이 출판된

것이다. 1994년에 고려편이 나오고 96년에 원시·고대편, 삼국사기·발해·후기신라편, 리조전기편, 리조후기편이 나왔다. 10여명의 학자들의 공동으로 집필한 것인데 앞말부분에서 편집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조선기술발전사에는 주체적립장과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조상들이 나라와 세계의 기술문명발전에 공헌한 자료들을 기본으로 수록하게 된다. 책의 내용은 시기별, 부문별로 구분하여 취급하였으며 해당한 문제들을 력사기록 및 유물, 유적에 대해 개괄하고 일반분석과 기술분석을 진행하는 방향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책의 편찬에서는 묻혀있던 자료와 유물들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연구 및 정리사업을 진행하여 결과를 반영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 책은 이제까지의 공화국에서의 기술사연구를 집대성한것이며 최상준, 신종림, 김승원, 김동신을 비롯하여 일관하게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한 학자들이 저자로 되어있다.

《조선운수사》, 《조선건축사(2)》 등 1990년을 전후하여 현대과학기술사와 관련된 책들이 출판된것이 주목되는데 1994년에는 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해방후편(1)》과 《화학공업사(1)》가 출판되었다. 전자는 해방직후부터 1970년까지 과학기술전반에 대하여 개괄하였으며 후자는 1960년까지의 비날론을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의 발전과정을 서술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현대과학사에 관한 책이 많아진다고 예측되는데 이는 우리 나라가

해방되어 반세기가 지나 그 동안의 과학기술에 대하여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된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또한 전문서적은 아니지만 1989년에 출판된 《한 탐구자의 생애》는 농학박사 계응상에 대한 실화소설인데 식민지시기에 고학을 하고 온갖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한 주인공의 한생을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다. 이어 리승기박사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도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2. 대표적인 연구자

공화국의 과학사연구의 제1인자로 올려야 할 사람은 리용태이다. 그는 1945년에 경성제국대학 리공학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해방직후에는 경성대학의 조수직에 있었다. 1946년에 김일성종합대학이 창립될 무렵에 북으로 자리를 옮기고 전쟁시에는 구쏘련에 류학하여 1951년에는 레닌그라드 공과대학학사론문〈전자기리론발전에서의 로씨야학자들의 업적〉을 완성하였다. 이 논문은 아마도 남북의 과학사관계의 최초의 연구논문일것이다. 정전직후에는 리과 교육에 전심하여 《아동과학(1)·재미나는 문제와 실험》, 《아동과학(3)·어린 과학자의 과외작업》이라는 참고서적과〈전문학수업에 우리 나라의 유산을 도입할데 대한 의견〉, 〈중학교의 물리학실험기구제작〉, 〈멘데레프의 업적과 세계관〉 등의 해설기사를 쓰고있다. 그후 1956, 57년에는 그가 편집자로 되어 《우리 선조의 자랑·과학과 기술의 이야기》를 출판하였다. 또한 1960

년에는 일본의 다쓰라센노스께(田村專之助)의 《조선기상학연구》를 번역출판하고 있다. 이 시기 소련의 책의 번역은 많은데 일본의 책의 번역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무렵 리용태는 과학원철학연구소에 적을 두고 <리수광의 자연과학사상>, <다산·정약용의 자연과학사상>, <다산·정약용의 우주관>, <지봉·리수광의 과학분류체계>, <연암·박지원의 자연관> 등 실학자들의 자연과학사상에 관한 논문을 많이 내놓았다. 이 논문들은 실학자들의 자연과학분야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논 논문이다. 리용태는 1963년에 출판된 《조선문화사》의 과학부분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하여 그가 과학사연구의 제1인자라는것이 학계에서도 인정되고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70년대로부터 80년대에 걸쳐 리용태의 활동은 거의 알려진것이 없는데 그 존재를 새삼스럽게 부각시킨것은 1990년의 《우리 나라중세과학기술사》의 출판이다.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을 확인하였을 때 1956년의 《우리 선조의 자랑》 이래 일관하여 과학사를 추구해온 저자의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었다. 그런데 이책이 리용태의 마지막 서적으로 된것 같다.

리용태의 연구의 중심은 과학분야인데 기술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김승원이 다. 해방당시 17살의 소년이던 그는 보이라기술자로 되기를 희망하여 평양공업대학에서 배웠다. 22살경부터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기술에 흥미를 가져 국립도서관(현인민대학습당)에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학의 세미나에서 <15, 16세기의 우리 나라의 기술발전> 이라는 제

목으로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학교원으로 된 김승원은 열공학을 전공하면서 기술사에 대한 연구를 깊였다. 대학에서는 그를 방조하기 위한 연구집단을 조직하고 옛문헌에서 선박, 생산기술, 관측기구, 무기, 활자, 인쇄기술, 광업기술에 관한 기록을 모으고 공학적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완성된것이 《조선과학기술발전사자료집》 전4권이다. 《우리 선조의 자랑》의 각종 기계의 집필, 《조선문화사》의 기술부분 집필 등 역시 그가 기술사연구의 제1인자라고 말할수 있다.

김승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다. 자료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김승원은 몇해동안 국립도서관을 다녔는데 그의 전공을 역사학이라고 생각하던 도서관원은 어느날 단재 신채호의 미정리의 원고를 보이었다. 그 원고는 한때 신채호가 하숙하던 집주인이 기증한것인데 그의 소설이었다. 원고는 보기에 힘들고 그것을 정리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는데 김승원은 우리 나라력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의 귀중한 유고라고 하여 자기가 정리하기로 결심하였다. 2년후에 기본적으로 청서를 끝냈는데 첩본으로 만들어진 뒤면에도 글자가 썩여진것을 발견하였다. 모든 원고를 뜯어보고 거기에 썩여진 내용까지 포함하여 끝내 청서를 완성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신채호의 소설은 이렇게 하여 마련된것이다. 최근에 출판된 《조선기술발전사》 전5권의 집필자 속에 그 이름을 확인할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3. 맺음을 대신하여

마지막으로 필자의 연구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고 한다. 필자는 리론물리학을 전공하고있는데 어느 날 우리 나라에는 물리학이 없었던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필자는 물리학은커녕 우리 나라의 과학사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있었다. 그래서 읽기 시작한것이 《우리 선조의 자랑》이다. 내용에 감동되어 일본사람들에게도 알리자는 목적으로 《조선의 과학과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판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필자는 실학자 홍대용에 대하여 알게되어 그후에 과학사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조선의 실학자 홍대용의 지전설에 대하여〉, 〈조선에서의 독자적인 우주론의 발전에 대하여〉, 〈칸트와 홍대용의 우주론의 비교검토〉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우리 나라 과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하는 생각에서 해설기사들을 모아서 《조선과학문화사에로의 아프로치》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작년에는 유지들과 함께 리승기, 계응상, 도상록을 비롯한 자연과학자들과 홍명희, 백남운, 리극로, 김석형을 비롯한 사회과학자들의 생애와 활동, 그들의 수기를 묶은 《현대조선의 과학자들》을 출판하였다.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 과학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기에 계속 연구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갈 생각이다.

최근에 전상운선생님의 《한국과학사의 새로운 리해》를 읽었는데 거기에 《조선기술발전사》에 대하여 《이 책의 저자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그들중에 지난 30년동안 북한 기술 고고학 연구를 이끌어 온 학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오랜 노력이 이룩한 업적이 높이 평가된다》라고 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인가 남북의 학자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나라 과학사에 대하여 론할 날이 있기를 믿어마지않습니다. 학회의 활동과 회원 여러분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있기를 마음속으로부터 축원합니다.

초학도에 지나지않는 저에게 학회초청장을 보내도록 해주신 박성래선생님과 송상용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